


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>교훈: 정직</div> <div></div> | 가정통신문 | 제2020-134호 |
| | | 담당: 교무기획부 |
| | 장애학생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|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71 ☎ 031-316-8712 |

성폭력은 성과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인 말, 포옹, 신체 접촉, 입맞춤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.

장난은 장난을 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가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. 어릴 때에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던 남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그 남학생이 고무줄을 끊고 도망갔을 때에 하지 말라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장난입니다. 하지만 고무줄을 끊고 도망갔을 때 누군가가 장시간 화남을 주체할 수 없다면 이는 폭력이 됩니다. 하나의 행동이 일어난 후에,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이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.

의도는 장난이었지만, 폭력으로 발전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때 유행했던 ‘왕 게임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왕이 된 아이가 지목한 사람은 왕이 정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. 때로는 뽀뽀라든지, 포옹까지도 말입니다. 이러한 경우, 원치 않은 성적 행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‘게임’과 ‘폭력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. 이렇듯 아이들은 이러한 장난과 폭력을 잘 구분해내지 못합니다.

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·발달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,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성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,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일로 인하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아이들이 장난의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이 장난이 아닌 폭력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입니다.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난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 밖에 없습니다.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, 세심한 관찰을 통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 세상(여성가족부)

장난일까요? 폭력일까요?

※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○표 해보세요.

| 장난일까요? 폭력일까요? | 내 생각은?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키가 작거나 뚱뚱하다고 친구를 놀려요. | |
|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바보라고 놀려요. | |
| 지나가는 친구를 밀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려요. | |
| 친구에게 겁을 줘서 하기 싫어하는 심부름을 시켜요. | |
| 친구들과 놀거나 밥을 먹을 때 싫어하는 친구를 따돌려요. | |
| 다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척해요. | |
| 인터넷으로 친구가 부끄러워하는 사진을 퍼뜨려요. | |
| 휴대폰으로 친구를 놀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. | |
| 친구의 물건을 몰래 숨기고 당황하는 친구를 보고 재밌어 해요. | |
| 친구에게 빌린 물건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아요. | |
| 지나가면서 친구의 머리를 톡톡 쳐요. | |
| 친구가 부끄러워하는 얘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내요. | |
| 놀이를 할 때 한 친구에게만 계속 술래를 시켜요. | |

장난은 폭력일까요?

친구끼리 가벼운 장난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난이 심해지면 상처가 돼요.

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.

출처: 통합학급 속 인권이야기(국립특수교육원) 답: 모두 ○

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입니다. 또한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.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, 사이좋게 협력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11.

시흥매화중학교장 [직인생략]